

소크라테스, 오늘 삼성과 연습경기 첫 출전

“몸 상태 ‘굿’...팀 승리 위해 노력”

동료들이 ‘테스형’이라 불러
한국말 배우기에도 열심

KIA 타이거즈의 소크라테스가 KBO 데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지난 26·27일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소화했던 KIA가 3일 대구로 가서 삼성 라이온즈와 세 번째 연습경기를 치른다.

앞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새 외국인 외야수 소크라테스는 삼성전에 출격해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된다. 한 달 가량 새 팀에서 새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온 소크라테스는 첫 연습경기를 앞두고 ‘굿’을 외쳤다.

그는 “몸 상태가 좋다. 훈련하면서 몸도 좋아진 것 같고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었다”며 “미국에서는 직접 몸을 준비한 뒤 합류했지만 여기에서는 팀하고 같이 훈련하는 방식이다. 서로 알아가는 것도 좋았고, 팀 단합에도 좋은 것 같다”고 새로운 환경을 이야기했다.

외국인 선수들의 KBO리그 성공 여부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적응’이다. 소크라테스는 선수단과 잘 어울리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동료들에게

‘테스형’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소크라테스는 “경기하는 것은 미국이나 여기나 똑같다.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활발한 분위기에서 경기가 진행된다”며 “모든 사람이 잘 대해줘서 잘 지내고 있다.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는 게 좋다.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빅리거’로 활약했던 최희섭 코치도 소크라테스의 KBO리그 성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최희섭 코치와)매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 한국 야구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게임을 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준다. 또 약점을 보지 말고 조연해줬다”고 언급했다.

매일 새 팀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는 그는 한국말 배우기에도 열심이다.

“안녕하세요”, ‘배고파’, ‘수고하셨습니다’ 등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소크라테스는 “스페인어 하는 사람한테는 한국말 배우는 게 쉬운 것 같다”고 웃었다.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내부에서 지켜본 KIA는 강했다. 상

대로 만나 본 KIA 투수들도 인상적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타자들의 스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팀 투수들이 피칭하는 모습을 봤는데 매우 좋았다. 올 시즌 좋을 것 같다. 우리 팀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KIA 성적을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지난해 터커의 부진과 최형우·나지완의 부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중견수 자리에 서게 되는 소크라테스는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역할이 막중하다. KIA는 빠른 발을 가진 소크라테스에게서 배나디나와 같은 공·수·주의 고른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3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KIA는 올 시즌 소크라테스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오래 경기를 안 했던 만큼 최대한 배트에 공을 맞는 데 집중하겠다. 내 리듬을 살리려고 하고, 타이밍 잡는 것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정한 것은 없다. 매일 경기를 한다. 나는 승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 숫자에 전념하고 싶지는 않다. 팀 승리가 최우선이다”며 팀 승리를 목표로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소크라테스가 3일 삼성을 상대로 첫 연습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타격 훈련을 하는 소크라테스. (KIA 타이거즈 제공)



2일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 경기에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슈팅을 막힌 뒤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헤더도 백힐도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토트넘, FA컵 16강서 탈락

생애 첫 프로 무대 우승을 꿈꾸던 손흥민(30)이 상대 골키퍼의 철벽 방어에 결국 고개를 떨궜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십(2부 리그) 미들즈브러와 2021-2022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에 선발 출전했다.

지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해리 케인과 리그 역대 최다 38골 합작 신기록을 쓴 손흥민은 이날 신나게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에서 가장 많은 4개의 슈팅을 날렸다.

손흥민이 날린 슈팅 4개 모두 골대 안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들즈브러 골키퍼 조 럼리의 선방에 막혀버렸다.

손흥민은 후반전 추가시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며 헤더로 마무리했지만, 공은 럼리의 품에 안겼다.

연장전 전반 추가시간에는 데얀 콜루세브스키

가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를 넘기자 손흥민이 감각적인 백힐 슈팅으로 연결했다.

공은 럼리의 다리 사이를 통과해 골라인으로 향했다. 그러나 럼리는 동물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돌려 공을 잡아냈다.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의 공격을 다 막아낸 미들즈브러는 연장 후반 2분 조시 코번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이 FA컵에서 탈락하면서 손흥민은 프로 무대 첫 우승을 다음 시즌으로 미루게 됐다.

손흥민은 유럽에서도 특급 공격수로 인정받지만, 우승컵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대표와 프로 경력을 통틀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우승 기록이다.

스물일곱 살인 럼리는 2013년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서 프로로 데뷔, 2-4부 리그를 오간 선수다.

QPR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임대로 8개 팀을 전전하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미들즈브러에 입단했다.

럼리는 유소년 시절 토트넘에서 축구를 배운 모한 인연도 있다.

열 살에 토트넘에 입단해 현재 토트넘의 주축인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 등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열여섯 살 때 토트넘으로부터 재계약 제의를 받지 못해 QPR 유소년팀으로 옮겼다.

경력에서 딱히 내세울 게 없었던 럼리는 올 시즌 FA컵에서 생애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쳐보이고 있다.

미들즈브러는 32강전에서 ‘거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승부차기 끝에 꺾었다. 이 경기에서도 럼리가 미들즈브러 골문을 사수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전 럼리의 활약을 두고 미들즈브러에서 두 번째로 높은 7.9점을 부여했다.

미드필더 조니 하우스니가 가장 높은 8.1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케인과 더불어 7.0점의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에서 선발 출전한 선수 중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가 가장 낮은 6.1점을 받았다.

/연합뉴스

KIA, 어린이 회원·홈페이지 회원 모집

‘가린이 클럽’ 500명 선착순

KIA가 2022시즌 어린이 회원과 홈페이지 회원을 모집한다.

KIA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린이 클럽’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가입비는 7만5000원이다.

가린이 클럽 회원에게는 온라인 타이거즈숍상품 포인트(10만원 상당)와 전용 엠블럼 패치, 팔찌 등이 선물로 제공된다.

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타이거즈숍 이용시 상품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저정적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정규시즌 중 구단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KIA는 홈페이지 T클럽 회원 신청도 받는다.

T클럽은 1년 회원제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300명, 가입비는 2만원이다.



T클럽 회원에 가입하면 홈페이지 내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팬북과 KIA타이거즈 달력을 기념품으로 받는다.

가린이 클럽과 T클럽 가입은 KIA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B 정상 개막 무산...162경기→156 경기 축소

류현진 8억8148만원·최지만 1억4280만원 삭감

2022시즌 메이저리그(MLB) 정상 개막이 무산되면서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과 최지만(31·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 ‘코리아 빅리거’들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됐다.

롭 맨프레드 MLB 사무국 커미셔너는 2일(한국시간) “4월 1일 개막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팀당 162경기의 정규시즌 일정을 ‘최대 156경기’로 축소한다. 일단 개막 후 두 번의 시리즈(팀당 6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기 수 축소가 결정되면서 정규시즌 활동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MLB 선수들은 연봉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현지에서는 정규시즌 일정이 축소되면 하루에 약 0.5%씩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정규시즌이 축소되면 MLB 선수들의 연봉 총액은 하루에 2050만달러씩 줄게 된다. 구단들도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보도했다.

삭감되는 구체적인 연봉 액수는 정규시즌 경기수인 162경기에서 취소되는 경기 수의 비율에 따라 것으로 전망된다.

MLB는 코로나19 여파로 정규시즌 경기 수가 예년 일정의 37% 수준인 60경기로 단축했던 2020시즌에도 선수들에게 정해진 연봉의 37%만 지급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훈련 중인 류현진은 정규시즌 경기 수 축소로 인해 하루 1억4691만원씩, 97일 동안 총 8억8148만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된다. 류현진의 올해 연봉은 2000만달러(238억원)이다.

올 시즌 연봉이 320만달러(38억5600만원)인 최지만도 하루 2380만원씩 97일 동안 총 1억4280만원을 잃게 된다.

MLB 직장폐쇄로 FA 협상이 중단된 탓에 아직 소속팀을 찾지 못한 김광현은 지난 시즌 연봉인 400만달러(48억2000만원)를 기준으로 하루 2975만달러 총 1억7851만원을 손해볼 전망이다.

MLB 구단은 선수노조와의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CBA)을 개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일 직장폐쇄를 택했다.

/연합뉴스